

## 순가락

「순가락만이라도 두구 가세요. 당장 오늘부터 밥을 무얼루 먹어요.」

어머니의 음성에는 울음이 섞였다.

「밥은 꼭 순가락으로 먹어야 되나? 나이찌진(內地人·일본인)들을 봐요. 순가락으루 밥 먹음디까?」

「그럼 젓가락이라두.」

「아 참 이 여편네가 지금이 어느 때라구 이렇게 분간없이 굴어. 우린 총알이 모자란단 말요. 꼭 낫젓가락만 젓가락이야. 나이찌진이 낫젓가락 쓰는 것 봤어?」

면소와 주재소에서 나온 사나이들은 황국신민의 각오가 어찌니 저찌니 하면서 집안의 쇠붙이를 모조리 뒤져 모아 리어카에 실린 커다란 나무함지에 던져 넣었다. 그 유기들은 그래도 옛날에는 행세를 했다는 집안에 남아 있는 유일한 물건들이었다. 낫쇠들은 부딪치며 저마다 소리를 내고 종소리처럼 여운이 위잉 울렸다.

「아이구 대대로 내려온 그릇을——」

마침내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일곱 살 난 섹십이는 조막만한 어린 동생을 업은 채 리어카 뒤를 쫓아나갔다.

아름다운 날이었다. 물어날 듯 파아란 하늘이었다. 맑은 늦가을의 햇살이 늦쇠 위에 부서져내려 늦쇠들은 금색으로 반짝거렸다. 섭섭이는 뒤섞인 그릇들 속에 자기의 작은 손가락을 푹푹히 보았다. 그것은 유독 아름답게 보배롭게 빛나고 있었다.

순간 모든 것은 눈앞에서 사라지고 하늘과 땅 사이에 손가락과 자기만이 남았다. 이 순간 그 반짝거리는 작은 늦손가락은 목숨이었다. 그녀 자신이었다.

사나이들은 발 하나 건너 용이네 집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이 집안으로 들어가고 한 사람이 남아 리어카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몸을 가리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섭섭이의 눈에는 그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서슴지 않고 리어카 옆으로 다가가서 손가락을 집어냈다. 그것을 품에 넣기도 전에 역센 손이 그녀의 가는 팔을 움켜잡았다.

「대추씨만한 년이 겁두 없이 도둑질이야.」

고함을 지르다가 갑자기 사나이는 으악 소리를 지르고 그녀의 팔을 놓았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는 그의 손을 야물지게 물어뜯었던 것이다. 매운 손이 날아와서 여윈 뺨을 후려쳤다. 허덕거리며 사나이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이 도둑년이 이 도둑년이……」

그녀가 도둑년이란 말을 들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그런 소동이 없었다. 그러나 나쁜짓을 했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다만 아버지가 주재소에 끌려가서 호되게 맞은 후 얼굴이 퉁퉁 부어 돌아왔을 때 비로소 겁이 나고 진정으로 미안한 생각이 들었을 뿐이다.

다리를 절어 정용을 면할 수 있었던 아버지는 말이 적고 언제나 성난 사람 같았다.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준 일이 없어 언제나 무섭기만 한 아버지였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마 죽일 거야.

그러나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어쩔줄을 몰라 하면서 찬물에 담갔다가 짠 수건으로 부은 얼굴을 닦아주고 자리를 깔아주었으나 그는 눕지 않고 잠잠히 앉아만 있었다.

그가 입을 연 것은 아내가 방구석에 놓인 보리쌀 항아리의 짚 뚜껑을 열었을 때였다.

「오늘 저녁엔 이팝 좀 짓구려.」

아내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애써 지은 농사는 공출로 거의 다 빼앗겨 보리쌀조차 넉넉하다고는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가지나물에 참기름두 듬뿍 치구, 어디서 북어두 좀 구해 오구.」

그날 저녁 밥상은 좀 늦게 들어왔다. 패색(敗色)이 날로 짙어가는 전지하의 어려운 한국사람으로서는 너무나 호화스러운 저녁상을 앞에 하고 짜릿가지로 급히 만든 젓가락을 그들은 어색하게 들었다.

가지나물도 북어국도 섭섭이가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그 좋아하는 음식을 섭섭이는 자꾸만 흘렸다. 젓가락이 서툴기도 했지만 눈앞이 흐려와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섭섭이가 왈각 울음을 터뜨린 것은 아버지가 북어국 건더기를 짜릿가지 젓가락으로 건져 한 손으로 그녀의 뒷머리를 받치고 입에 넣어주었을 때였다. 그녀는 느껴 울기 시작했다. 설새없이 흐르는 눈물로 맞아서 부어오른 뺨이 쓰리고 따끔거렸다.

「뭘 잘했다구 야단이야 아버지까지 봉변당하시게 하구. 똥싼놈이 성낸다더니 아무리 철이 없기로서니 사리를 알아야지.」

가지가지로 속을 썩힌 어머니가 야단을 치고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쉰다.

그래도 섭섭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성미에 못이긴 어머니가 아이의 팔을 힘껏 꼬집은 것과 섭섭이가 악을 쓰기 시작한 것은 동시의 일이었다.

모처럼의 이팝도 북어국도 다 식혀버리고 진중일 동원되어 소나무 뿌리를 췌다는 열 세 살 난 오빠와 열 살 된 언니는 가을해에 새카맣게 탄 얼굴에 피로와 졸음이 가득차 있다. 그런만큼 그 소동이 짜증스럽다. 깜찍한 언니 양순이가 종알거렸다.

「섭섭아, 너 미쳤구나. 도둑질을 다 하구.」

가뜩이나 무뚝뚝한 오빠 양길이는 성이 잔뜩 나서 일어섰다. 불멘소리로,

「너 또 그런 짓함 혼내줄테야.」

하고 주먹을 쳐들었다.

두 돌도 되기 전에 아우를 본 양옥이가 칭얼거렸다. 아우를 보고부터 뱃가죽이 맑아질 정도로 멍꽂이배가 되어도 어깨로 숨을 쉬며 먹으려 드는 그녀는 지금도 두 손을 밥그릇에 쭈셔넣어 밥을 움켜쥐고는 입에 쳐넣다가 사례가 들린 모양이다. 재채기를 하다가 나온 코를 손으로 문지르자 쪼그만 얼굴은 밤풀투성이가 되었다. 지난 여름에 난 막내 양례가 보채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성이 꼭두까지 난 모양이다.

마구 쥐어박으며 냇두리가 쏟아져 나왔다.

「아이구 지긋지긋해. 이년마저 이러면 난 어떻게 살아. 스라소니 같은 년이 흥물스럽게 성미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가봐.」

악을 쓰고 울면서 섭섭이는 알 수 없는 도취에 빠져들고 있었다. 새로운 체험이었다. 새로운 세계가 그녀 앞에 열리고 있었다.

수라장이 된 모든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은 어린 마음에도 너무나 명백했지만 꼬집히고 쥐어박히면서 찌릿한 쾌감 비슷한 것이 등골을 달린다. 그녀는 놀랄만큼 안차게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악을 쓰며 울었다. 그것은 주위를 괴롭혀가면서까지 비로소 살아 있다는 확증을 얻은 한 존재의 환성에 가까운 외침이었다.

그날의 그 아프면서도 너절한 사건은 섭섭이의 유년시절에 큰 자리를 차지했다.

낱 때부터 섭섭이었다. 아들이 없는 큰집과 뱃속에서부터 약속이 되어 말아들은 낡자마자 백부 앞으로 호적에 올랐다. 모두가 아들을 기다렸는데 다음에 태어난 것은 딸이었다. 얼마큼 섭섭은 했으나 만딸은 세간밀천이라고 그대로 넘어갔다. 이어 나온 것이 섭섭이다. 그때까지 살아 있던 할머니의 실망은 너무나 커서 정식이름을 짓기 전에 섭섭한 심정을 직선적으로 붙인 「섭섭이」

라는 이름이 그대로 불러내려왔다.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있으나마나의 존재였던 것이다. 네 살 때 아우를 보았을 때 할머니한테 야단을 맞았다.

「이년, 고추밭에 팔지 았구 무슨 터를 그렇게 팔아. 못난년 같으니.」

겨우 말을 익히고 아직도 혼자서는 뒷간에 갈 수가 없는 나이면서 이 말은 머리에 꽂혔다. 할머니의 얼굴이 무서웠던 까닭이리라.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다가 막내 양례가 생겼을 때 같은 말을 들었다. 이번에는 무서운 큰고모가 양옥이를 보고,

「요년두 고추밭에 터를 못팔았구먼.」

했던 것이다.

딸 많은 집 둘째딸 선 안보고 데려간다는 말대로 섭섭이는 어리면서 무뎠하고 말을 잘 들었다. 어린 나이면서 한번도 말썽을 부린 일이 없었다. 일꾼마저 징용으로 나가고 난 후 손이 달리는 안팎 일에 다섯 조무랑이를 데리고 어머니는 항상 찢찢매었다. 송진을 탄다, 소나무뿌리를 캔다 하여 오빠와 언니는 언제나 학교에서 늦게 돌아왔다. 섭섭이는 막내동생을 업고 아귀같이 먹고 싸는 양옥이를 봐주어야 했다. 단풍잎만한 손으로 기저귀도 빨았다. 아무도 안스러워하지 않았다. 특별히 천대한 것이 아니고 모두가 지쳐 있었던 것이다.

섭섭이는 잘 견뎠다. 불평 한마디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그 나이를 생각지 않았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이때의 놀라움과 노여움은 더욱 컸던 것이겠지만 섭섭이 자신에도 그날은 놀라운 날이었다.

일의 좋고 나쁘기는 짓혀놓고 그녀는 난생 처음 모두의 관심을 끌었던 너절하고 멧멧하지는 못했을망정, 힐난과 비난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을망정, 어느 사건의 중심인물이 되었던 것이다.

더욱 놀라운 일도 일어났었다. 자기가 「양득(良得)」이라는 것을 실감한 것도 이날이었다. 처음으로 양득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을 때의 충격과 감동은 어린 영혼에 깊이 새겨져 지워지지 않았다.

그 이름을 맨 먼저 불러준 사람은 그 이름을 지어준 아버지였

다. 그는 악을 쓰며 매를 맞고 있는 섭섭이를 어머니로부터 빼앗아 안고 건너방으로 들어갔다. 이부자리를 내려 깔고 함께 누웠다.

「양득아, 고단하지? 아빠두 졸려. 우리 같이 자자 응?」

이 순간부터 섭섭이는 양득이가 되었다. 한 인격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서 양득이는 어린 새처럼 바르르 떨고만 있었다. 형용할 수 없이 큰 위로와 안도가 그녀를 감쌌다. 그것은 알 수 없는 죄스러움이 섞이는 황홀감이었다. 비로소 그녀는 별을 받고 싶다고 생각했다.

불에 쪼였을 때만 나타나는 특수한 안료로 써진 글씨처럼 스스로도 깨닫지 못한, 차라리 비밀스럽기조차 한 이때의 미묘한 마음의 움직임은 그녀의 의식 깊은 바닥에 은밀히 새겨진 채 망각 속에 가라앉았다.

있었던 일들을 모조리 기억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어렸다. 이 사건은 양득의 기억에서 모두 빠져나갔다. 다만 햇별을 받아 본래의 가치보다 더 귀한 것이 되어 반짝이던 수저만이 가끔 떠올랐다. 강한 유혹처럼, 숙명처럼, 세월이 가도 그 반짝임은 가셔지지 않았다.

송희장 부인 사건은 날완의 수사관들에게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랄 수밖에 없었다. 현행법에는 틀림이 없지만 흠친 물건이라는 것이 겨우 싸구려 스테인레스 수저 오십 매다. 집을 찾았을 때는 잘못 찾아온 것이 아닌가 했다.

정원만도 천 평은 될 성싶었다. 좀처럼 볼 수 없는 귀하고 값비싼 정원수들은 싹날 때부터 그 자리에서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운치있게 배치되어 있는 작은 집채만큼이나 큰 반석들도 태고 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고, 쏟아져내리는 폭포가 인공이라는 것은 더욱 믿어지지 않았다.

저택의 호화로움은 말할 나위가 없었다. 이태리에서 들여왔다는 가구, 불란서제의 상들리에, 페르시아의 카펫은 현란하리만큼 아름다웠다. 넓고 밝은 한실차림의 벽을 채운 호화를 극한 대형

자개장과 각각 놓일 자리에 보기 좋게 자리잡은 전통 가구들은 모두가 일류화가에게 특별히 청탁한 그림을 바탕으로 인간문화재, 공예가가 무지개 자개로 아로새긴 것들이라는 것이다.

「아 바로 그 송회장집이구먼.」

「그 송회장이라니.」

「그 왜 부동산 재벌 말이야.」

「헌데 왜 어린 집 사모님이 그따위 짓을……」

「정신 이상잘지두 모르지.」

「어쨌건 알다가두 모를 일이야.」

결국 사원들 야유회용으로 사려했었는데 값을 치르는 것을 잊고 나왔다는 것으로 하여 사건은 무마되었지만 한바탕 소동을 치렀다.

이 일이 있고부터 송회장 부인 권양득 여사는 더욱 외로운 사람이 되었다.

가난한 시골처녀 양득이 아버지를 도와 농사를 짓고 있는 농촌 총각 송대철에게 시집을 온 것은 휴전 이듬해 일이다. 육촌을케의 친정 일가집 총각으로 이른바 연줄 혼인이며, 신랑이 중학을 다니다 말고 신부가 국민학교를 마쳤으니 넘치지도 기을지도 않는 짝으로 맺어졌었다. 비슷비슷한 처지였던 것이다.

다른 데가 있다면 같은 농촌이기는 하나 색시집이 깊숙한 산골 포천에 있는데 비해 신랑이 사는 곳은 강 하나 건너면 거대한 도시 서울이었다. 그러나 거센 일만 하고 늙은 아버지를 묵묵히 섬긴 어머니는 그 강을 단 한번도 건너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하직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강 하나 두고 서울을 마주보면서 그렇게들 살아왔었던 것이다.

시아버지에게는 맺힌 한이 있었다. 어려서 잃은 부모의 무덤을 찾을 길이 없는 한이었다. 공동묘지에 있다고만 들었지 들맹이 표식 하나 없고보니 한식, 추석에 죄스럽고 한스러웠다.

남의 집 머슴살이, 남이 싫어하는 염쟁이, 상뚝군, 산판품꾼, 가리품꾼, 닥치는대로 일을 하면서 막걸리 한번 제돈으로는 사마신 일 없이 모은 돈으로 그가 제일 먼저 사들인 것이 마침 혈값

으로 넘어가는 야산이었다.

풍수 따위는 애초부터 염두에 없었다. 자기 시신을 묻는 것만으로 족했다. 그저 두리둥실 멧대가리 없는 나지막한 산은 나무 한 그루 없는 것으로 보아 산 임자는 소재도 모르고 있던 것이 분명했다. 그 임야 열 정보에 논 두어 마지기, 형편없는 밭 천 평쯤이 당시의 일화(日貨) 백 이십 원으로 손에 들어왔다. 아버지가 마흔 다섯, 늦게 장가를 들어 얻은 아들 대철이가 열살 되던 해였다.

해방이 된 것은 이년 후의 일이다. 집안은 여전히 넉넉지 못했다. 산은 꽤 넓다 해도 돌멩이 투성이의 악산이어서 개간도 몹시 어려웠다. 영감은 이미 늙었는데 품삯을 줄 여유도 없었다. 두어 마지기 논과 깡마른 천 평 밭에 매어달려 살아야 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건만 대철은 중학을 겨우 이년 다녔다. 열 다섯 살이나 손 아래의 아내는 무던하고 바지런했으나 몸이 약했다. 천 평 밭에 시금치, 파, 당근 따위를 심어 팔아 들어오는 돈으로 여섯 식구 입에 풀칠하는 살림은 언제나 어려웠다. 일꾼 살 여유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대철이가 장가를 든다는 것은 일손 하나를 더 얻는 것이 되었다. 열 아홉 살 때 두 살 위인 대철이와 결혼하자 양득이는 늘상 밭에서 살았다. 집안일은 시어머니가 맡아하다시피 하여 그녀는 숫제 농사꾼이었다.

대철은 예쁘장한 아내를 얻고부터 중학 중퇴의 슬픔을 얼마큼 잊었다.

젊고 건강한 그들의 신혼생활은 들에서 시작되고 그들은 충분히 행복했다. 숫총각 숫처녀로 만난 젊음들은 첫정에 잠시도 떨어지기가 싫었기 때문에 둘만이 하는 들일은 차라리 즐거웠고 노동 뒤에 오는 가벼운 피로조차도 신선했다. 육이오의 상처도 가셔가는 서울에는 폐허에 집이 들어서고 날로 인구가 늘어가서 야채의 수요도 늘어갔다. 중간상인 좋은 일만 시키고 있다고는 하나 집안형편은 훨씬 나아졌다. 첫아들 똥이 지날 무렵부터 젊은 내외는 청정야채 재배에 손을 댔다. 이 시도는 뜻밖의 성공을 거두어



이때 지나 둘째 아들이 태어나던 해에는 짙은 짙은 사 모은 땅이 만 평 가까이 되었다. 그때만 해도 그곳 밭지세는 이십 원 안팎이었던 것이다.

어느 비오는 날이었다. 밭에 나가지 못한 대철은 친구 집에 따실을 갔었다. 늦게 돌아온 그는 잠자리에 들면서 중얼거리듯 말했다.

「새로 다리가 놓인다는 소문이 도는데 그러면 수송이 좀더 쉬워질테지.」

새로운 다리가 놓인다는 말은 헛소문이 아니었다. 영동에서 한 남동에 걸쳐 제 3한강교가 생긴다는 기사가 신문에 나고 얼마 가지 않아 강 건너 사장에 자재가 산같이 쌓이더니 이내 교각공사가 시작되었다.

수도 서울을 강 하나 사이에 두면서 외진 농촌과 별 차이 없던 마을에 이변이 일어났다. 서울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한강교를 차로 넘어 동작동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오기도 했다.

「봉이네집 배추밭 말야. 이천원에 팔렸는지 않아.」

하루는 대철이가 대낮에 숨이 찬 듯 집으로 돌아와서 마당에 선 채 큰소리로 말했다. 항상 조용한 그의 일찌기 없던 언동이었다.

「이천원에요?」

양득이 땀에 내려서기가 바쁘게 물었다. 남편의 흥분이 옮겨왔던 것이다.

「그럼 우리 건 얼마나 될까?」

「새로 사들인 것만 해도 이천만원이지 뭐.」

안방 뒷마루로 난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얼굴을 내밀었다.

「미친놈들 같으니. 땅 파 먹던 놈은 썩이, 호미 던질 때가 끝장날 때야. 패가망신하기 십상이지.」

중얼거리고 그는 쿨쿨거리며 카악 요강에 가래를 뱉었다. 날씨도 차지만 천식이 심했다. 젊었을 때의 무리와 흑심한 과로 까닭인지 그는 나이보다 무척 늙어 있었다. 지난해에 마누라를 잃고

부터는 바깥출입도 잘 하지 않았다.

봄이 오자 대철은 여느해처럼 묵묵히 야채를 가꾸기 시작했다. 온 마을이 들떠 있는데 그는 땅만 파다. 노인은 그런 아들을 대견해 했다. 봄이 아빠가 땅판 돈으로 살롱이라는 것을 차리고 감색 양복에 난한 넥타이를 매고 설치며 다니는가 하면 석이네는 야산을 팔아 무슨 공장인가를 샀다는 소문이 돌았다. 모두 사장이 된 것이다.

논이 메꾸어지고 그 위에 간판만 큰 판자집이 날로 늘어갔다. 복덕방, 부동산소개라는 커다란 간판을 붙인 판자집들은 여인네가 더 많은 서울사람들로 항상 붐볐다.

여름이 가고 있어도 대철은 웬일인지 가을야채 과종을 하지 않았다. 솟제 밭에는 나가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집에 붙어 있지도 않았다.

대철이가 친구가 낸 복덕방일을 도와주고 있다는 소문은 곧 동네에 퍼졌다. 모두들 같은 말을 했다.

「이 판에 저라구 땅만 파?」

얼마 가지 않아 대철은 또 마을의 화제가 되었다.

「아 그 숙맥이 별 재미두 볼 줄 모르구 파밭노릇만 한다잖아.」

대철은 누가 뭐라해도 꼬박 일년을 친구를 위하여 파밭처럼 뛰었다. 일년이 지난 후 그는 비로소 자신의 가게를 가졌다. 농군의 자식으로 태어나 자신도 땅만 파왔고 구변도 없거니와 세상물정을 잘 아는 것도 아니었던만 어딘지 서툰 듯 순진해 보이는 느낌과 말은 일에는 끝내 책임을 지는 성실과 듄직하고 잘생긴 얼굴이 호감을 갖게 하는지 그의 가게에는 곧 단골이 붙기 시작했다.

다리가 완성되고 새구역의 도시계획이 서고 채비지가 분양되면 서부터 그는 식사할 틈조차 없어졌다. 그는 그 성실성으로 틀림 없는 사람이라는 평을 받고 있었다. 거기다가 어리숙해 보이지만 기실 정보통이란 소문이 돌았다. 매부 하나가 시의 도시계획과 하급직원이라는 것도 차차 알려지게 되었다.

손이 달리자 그는 포천군청 서기로 있는 동서를 불러들였다.

세무과 일을 보고 있던 그는 적지않게 그의 도움이 되었다.

어느날 이른 아침 양득이가 아침밥을 짓고 있는데 서너 명의 요란스럽게 차린 여자들이 찾아왔다.

「사장님 계세요?」

한 여자가 물었다.

「사장님?」

양득의 눈이 휘둥그래졌다.

「송사장님, 송대철 사장님 덕이죠?」

남편이 송사장으로 불리는 것을 양득은 이때 처음 알았다. 저녁 늦게 돌아온 남편이 그녀에게는 낯선 사람으로 보였다. 가장 소중한 것을 모르는 사이에 잃은 것도 같고 빼앗긴 것도 같은 느낌이였다.

남편은 점점 더 바빠졌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야채밭에 나갈 필요가 없었다. 밭에서는 벌써 오래 전에 야채가 뽑히고 터가 다 쳐져서 집들이 들어서고 있었다.

시아버지도 이제,

「땅 파먹고 살던 놈은 썩이, 호미 던지는 날이 끝장나는 날이야.」

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뿐만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 데 감춰두었던 산문서 받문서를 아들에게 비로소 넘겨주었다.

그러나 그는 오직 자신의 시신을 묻을 곳을 갖고 싶은 일념으로 뼈를 깎아 모은 돈으로 사들인 그 악산(惡山)의 가치가 얼마나 막대한 것인가를 모르고 있었다. 풍수를 따진다면 결코 명당일 수 없는 그 두리몽실 보잘것 없는 편편한 야산일대는 장차 강남지구의 중심부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양득에게 혼돈의 계절이 왔다. 영문을 모르는 사이에 그녀는 「사모님」으로 불리고 있었다. 꿈속에서도 본 일이 없는 으리으리한 집의 화려한 방에서 호화로운 가구문짝을 열면 수없이 걸려 있는 값비싼 옷들이 모두 자기 것이라는 것이다.

누우면 몸을 떠받쳐 주는 것 같은 팽팽하게 탄력있는 침대, 발자국소리를 빨아들이는 것 같은 폭신한 카펫, 보석같이 아름다운

등, 엄동에도 항상 피어 있는 희귀한 꽃들, 비단으로 짠 의자들, 그런 것들 모두가 자기것이란다. 이윽고 남편은 보다 더 넓고 더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이었다.

대철은 극진하고 효성스러운 아들이며 너그럽고 착한 남편이었다. 그들의 지난날의 고생에 보답하려고 애쓰는 진실한 인간이었다. 목숨을 헐다시피 하면서 기절할 만큼 막대한 재산을 장만해 준 아버지의 은덕, 젊음을 아이면서 오늘의 기반을 닦는 데 협력해 준 아내의 정성을 그는 잊지 않았다.

벼락부자의 대부분이 가지는 일종의 복수심 같은 호화지방과 전시의식도 다분히 있었겠지만 고생만 해온 그들에게 최대한의 호강을 시켜 주고 싶었던 마음에도 거짓이 없었다.

그러나 그 호사스러운 집과 생활은 첫날부터 양득이에게는 얼떨떨하고 저항을 갖게 하였다.

그런 것도 이사라고 할 수 있는지 몰랐다. 늦가을의 어느 화창한 날, 식구들은 옷만 입은 채 살던 집을 나섰다. 양득에게는 하나하나가 아까운 살림이었지만 대철은 밥그릇 하나 들고 나오지 못하게 했다. 매미가 허물을 벗듯 그 집을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양득은 전혀 알지 못했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첫 실수는 변소에서 시작됐다. 아직 집구경도 채 마치기 전에 그녀는 노의를 느꼈다. 견딜 수 없을 때까지 참다가 더이상 참지 못하게 되자 줄곧 따라다니던 예쁘장한 계집애에게 물었다.

「뒷간이 어디예요?」

「네? 화장실은 안방 옆이에요.」

계집애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또랑또랑하게 들렸다.

「안방 옆에?」

「벽 쪽으로 난 도어를 여시면 돼요.」

「도어?」

「문 말이에요.」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간 방은 뒷간이 아니었다. 연분홍색으로 꾸며진 예쁜 방에는 한쪽 벽면으로 사기로 만든 예쁜 배 같은 것이 놓여 있고 벽에 걸린 거울 아래에 수도꼭지가 둘 달린 밑에 받

달모양의 대야만한 사기그릇이 벽에 붙어 있는 외에는 가운데에 큰 구멍이 난 같은 빛깔의 깔끔한 사기의자가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방 밖으로 뛰어나갔다. 급했던 것이다.

「책시, 뒷간이 어디예요? 나 급한데.」

계집애 얼굴에 싸늘한 경멸의 빛이 지나간 것을 그녀는 눈치채지 못했다.

「지금 들어가셨잖아요.」

「게가 뒷간?」

「그렇다니깐요.」

「어디서 오줌을?」

양득은 못참을 지경에 이르러 있었다.

「변기에 앉아서 하세요.」

「변기?」

계집애는 안주인의 등을 떠밀듯 하며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를 가리켰다.

「이게 변기란 말예요.」

그녀는 야무지게 끊어 말하고 문을 탁 닫고 나가버렸다.

양득의 고투가 시작됐다. 그는 난생 처음 보는 양변기 테두리에 올라가 쪼그리고 앉았다. 테두리는 좁고 미끄러웠다.

그녀는 일을 끝내기도 전에 그만 미끄러져 딱딱한 타일바닥에 떨어져 나자빠졌다. 눈에 불이 번쩍 나도록 엉덩이에 격통을 느끼면서도 참고 참았던 소변은 멈추지 않고 쏟아져 나왔다. 변기 테두리며 타일바닥이 온통 물바다가 되고 속옷과 슬리퍼는 물에 빠뜨렸던 것처럼 흠뻑 젖었던 것이다.

이 첫날의 실수 때문인지 그녀는 집에 정이 붙지 않았다. 낯설은 남의 집에 온 것만 같았다. 항상 나들이 갈 때처럼 곱게 차려입는 옷도 신경이 쓰여 거북스러웠다. 그 껌직한 계집애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살림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미세스 변은 차라리 무섭고 부엌일을 하는 예천댁, 빨래와 다리미질 따위를 소임으로 하고 있는 선길이가 엄마, 요리사, 두 명의 운전사, 정원사 등 술한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깔보면서 감시하고 있는 것 같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혔다. 네 아이마다에 붙은 가정교사, 드나들며 지도하는 피아노 선생, 그림 선생, 바이올린 선생 등 한 달에 쌀 세 가마가 빠듯했다.

남편의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 장차 중심부가 되는 것이 확정된 야산만 해도 3만 평이었다. 착실하고 성실하게 복덕방을 경영하며 짹짹하게 재미를 보는 한편 내외가 기름땀 흘려 장만했던 그 밭을 좋은 값으로 넘기고 언뜻 쓸모없이 보이는 땅을 헐값으로 마구 사들인 것은 짐작되는 바 있었던 것이고, 그 짐작이 들어맞아 얼마 가지 않아서 땅값은 열 곱 스무 곱으로 뛰었다.

송회장의 선견지명에는 누구나가 혀를 내둘렀다. 그는 터 보는 도사가 되어 있었다. 어쨌든 그런 방법으로 땅을 팔고 사고 하여 강남땅의 절반은 송회장 땅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소부(小富)는 규모(절약)가 만들고 거부(巨富)는 하늘이 낸다는 말은 옛부터 내려오는 말이다. 송회장이야말로 하늘이 만든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이제 질투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그 대상의 범위를 넘어선 지 이미 오래였다. 20세기 말의 한국의 신화적 사람이었던 것이다.

놀라움과 부러움은 존경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그는 지역사회에 다대한 공헌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학교, 종합병원, 복지시설, 실비예식장, 시장 등의 방대한 대지를 아낌없이 희사하고 그 운영도 돕고 있었다.

거부가 되어도 그는 겸손했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나 누구 앞에서나 부끄러움 없이 물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자라고 원숙해져 갔다.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여섯 시간씩 교수들을 초빙하여 공부를 했다. 그는 그 공부를 처음 중학교과정에서부터 시작했었다. 대재벌 총수의 이런 태도는 교수들을 감동시켰다. 그는 이미 지식면에서도 수준을 넘어 있었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겨우 서른 여덟 살이었던 것이다.

그의 치부(恥部)는 호화를 극한 저택과 생활이었다. 하기가 그

집은 그에게는 잠만 자러 들어가는 곳에 지나지 않았으며 고생만 시킨 아버지와 아내에 대한 보속이란 명분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옛날의 건강하고 단순한 청년은 아니었다. 왕성하고 필요한 지식의 섭취는 그를 키우는 동시에 너무 깊이 생각하고 천착하는 악습도 갖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치부(致富)는 면밀히 계획을 세우고 실패도 거듭하면서 시간을 들여 각고노력(刻苦努力)한 결과 힘겹게 쌓을린 것이 아니다. 자수성가를 했다고보다는 지독하게 운이 좋았다고 해야 할 벼락부자이다. 약간의 치사한 느낌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돈 험프게 쓰는 자수성가한 사람 보기 어렵고 허파에 바람 안 든 벼락부자 드물다고 한다. 그는 가다가 물쓰듯 돈을 썼다. 남들이 놀라는 사회봉사와 거액의 희사 따위는 미덕이겠으나 지나치게 호화스러운 생활은 천성이 성실한 그도 어쩔 수 없이 벼락부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었다. 그런 뜻에서 그는 아직도 너무나 집요하게 가난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벼락부자의 지나친 과시는 악덕에나 미덕에나 가난을 이겨낸 승리자의 관용과 복수의 색채가 짙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간혹 자신도 어렴풋이 그런 것들을 자각할 때가 있을 만큼 그는 인간으로서도 성숙해가고 있었다.

어디까지나 행운아인 그는 측근에 착실하고 충실하고 유능한 보조자들을 가지고 있었다. 땅 팔아 살롱을 벌였다가 춤바람이 나고 유부녀와 놀아나다가 재산은 물론 다 날려보내고 살인까지 저지른 봉이아빠라던가, 역시 땅 팔아 시작한 사업을 분수없이 확장시키다가 자살을 한 석이아빠 따위의 미미한 존재는 아예 화제에 올릴 것도 못되었으나, 상당한 역사와 기반을 가진 업체들이 분간없이 문어발처럼 벌여놓은 경영방침으로 넘어져가는 것은 교훈이 되었다. 그는 건실하고 내용이 찬 훌륭한 기업가로 부상되었다.

남편은 이렇게 설세없이 자라가는데 양득은 여전히 혼미 속에 있었다. 그녀는 이제 변기사용의 실수 같은 것은 남의 일로 돌릴 정도로 문명의 이기에 익숙해 있었다. 텔레비전은 물론 스테레오

카세트, 전기세탁기, 청소기, 전자레인지, 믹서, 주서, 전기톱, 전기 잔디깎이 등등 귀신같이 일을 해치우는 헤아릴 수 없는 편리한 생활도구들도 이제 신기하지 않았다. 단추조종 하나로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이야 아무리 촌여자라도 몰랐다면 거짓말이 되겠지만 그 단추 누르는 횟수에 따라 밝아졌다 어두어졌다 하는 것이라든가 역시 단추조종 하나로 방이 더워졌다 알맞게 되었다 시원해졌다 하는 데에는 내심 감탄해 마지않았던 것이다.

더구나 저만치 멀리 떨어진 대문에 찾아온 사람들의 얼굴은 물론 일거일동을 안방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통해 볼 수 있고 앉은 채 역시 단추 하나로 그 무거운 철문을 여닫는 것을 알았을 때는 요술같이만 느껴졌었다.

온 집안 적소에 설치되고 배치된 그 정밀하면서 사용법이 간편한 기계들을 양득은 사용하거나 조종하는 일이 없다. 처음에는 해보고 싶어도 겁이 나서, 그리고 지금은 많은 사용인이 있는 집안 주인으로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양득이의 외모는 몰라보게 우아하고 아름다와져 있었다. 미세스 변은 그의 머리모양부터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제일급 미용원의 마담이 불러와서 그의 얼굴을 여러 각도에서 스케치한 후 여러가지 머리형을 스케치한 얼굴 위에 얹어 그렸다. 드디어 어느 스타일이 결정되고 노련한 미용사의 손으로 양득의 머리가 만져지자 촌뜨기같다고 마음 속에서 안주인을 깔보던 그 알미운 손심부름 하는 흥선이까지도,

「우리 사모님 참 멋지세요.」

하고 버릇없이 호들갑을 떨었다.

미세스 변은 유명 양장디자이너, 한복디자이너들도 불러들였다. 무표정하게 얼굴을 굳히고 언제나 흰 블라우스에 까만 치마를 받쳐입고 너무 입을 꼭 다무는 버릇 때문에 양 입귀에 주름이 잡힌 전도사 같은 이 여자는 파마도 안한 술이 많은 머리를 단정하게 위로 빗겨올리고 입술 한번 칠하는 일이 없었다. 머리털은 무더워 보일 정도로 술이 많으면서 어떤 일인지 눈썹은 없어, 앓고난 사람 같았지만 눈썹 한번 그린 일이 없었다. 머리모양이나 입술



새가 지나치게 단정하여 오히려 축스럽고 보기에 답답하고 딱했다.

그러나 그녀는 놀라울 만큼 미적 센스가 세련되고 예민했다. 그의 의견은 전문적인 디자이너들이나 미용사들을 놀라게 했다. 그녀는 사모님을 세련되게 하는데 정성을 다했다. 성과는 얼마가지 않아 나타났다. 원래 예쁘장하게 생긴 양득은 이제 누구의 눈에도 귀티가 흐르는 귀부인으로 보였다.

거울에 비치는 모습이 자기 눈에도 아름다와 보였으나 양득은 자기가 딴 사람만 같았다. 이 집에 오는 날부터 떨쳐버릴 수 없는 불편스러움과 통하는 느낌이였다.

양득은 식욕을 잃었다. 때마다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린 진수가 들어오지만 깔끔하고 예쁘게 아름다운 식기에 담은 반찬들은 화초같이 보였지 음식같이 보이지는 않았다. 통 입맛이 당겨지지 않는 것이였다. 상은 그냥 물러질 때가 많았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 걸신들린 사람처럼 자꾸 먹기만 했다. 그렇게 소나기밥을 먹고 하는 동안에 그녀의 위장은 엉망이 되였다.

어느날 밤 잠이 깬 그녀는 목이 몹시 말랐다. 편치못한 위 때문에 주스 따위는 마시지 않았는데 이때따라 오렌지 주스 생각이 났다. 벨을 누르려다가 시계를 보니 열 두 시 반이다. 얼마 전부터 외박이 잦은 남편은 오늘도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였다. 통금 시간은 이미 지나 있었다. 저녁을 드는 등 마는 등 했건만 과식한 것처럼 배가 부르다. 먹은 것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다. 목만 탄다. 이런 증세는 남편이 처음 외박을 하던 날부터 일어났다. 이제 어지간히 체념도 하는데 증세는 첫날과 같았다.

그녀는 슬리퍼도 걸치지 않고 복도로 나갔다. 창 너머 달이 밝았다. 달은 무척 외로와 보였다.

어렸을 때 할머니가 하던 말이 떠올랐다.

「섭섭아 넌 저 달이 어떻게 보이니? 쟁반만 하나, 멧방석만 하나.」

섭섭이는 뒤통수가 등에 닿을 만큼 고개를 제끼고 달을 쳐다보았다. 물을 머금은 그날 밤의 달은 섭섭이에게는 붉고 말랑한 거

대한 짜리같이 보였다.

「응, 커어다란 짜리 같애.」

「요년 할미를 놀리는 거냐.」

할머니는 괜히 역정을 냈다.

「정말이야, 바알간 짜리 같단 말야.」

「저게 멍석 같지, 어떻게 짜리 같애. 우스운 년 같으니.」

「할머니, 난 멍석 같애.」

옆에서 언니 양순이가 내대었다.

「참 멍석만 하군요.」

개숫물통을 안고 부엌에서 나온 어머니가 하늘을 쳐다보며 말했다. 섭섭이는 더 우기지 않았으나 다시 쳐다보아도 달은 말랑하고 밟그레한 커어다란 짜리같이만 보였다. 그녀는 공연히 울고 싶었다.

달 달 밝은 달, 쟁반같이 둥근 달——까까중 머리의 오빠 양길이가 몇 마디 노래를 부르다 말고,

「난 쟁반만한데.」

불쭉 한 마디 던졌다. 아무도 짜리 같다는 사람은 없었다. 외양간 지붕 위에 핀 박꽃이 은빛으로 보였다.

양득은 달을 쳐다보았다. 높이 뜬 달은 은종이를 오려붙인 듯 통 부피가 없어보였다. 멍석이나 쟁반같이 보이지도 않았으나 짜리같이 보이지도 않았다.

그녀는 쓸쓸하게 웃으며 가난한 초가, 나무 한 그루 없는 마당에 놓여 있던 낡은 평상 위에 모여앉았던 그리운 얼굴들을 떠올렸다. 할머니는 그녀가 여섯 살 때 돌아가셨지만 하나만 남은 알니가 유난히 길었던 것은 기억하고 있다. 박복한 어머니는 몇 년만 더 살았어도 힘껏 호도를 볼 수 있었는데, 양득이가 시금치밭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무렵 속앓이로 세상을 떴다. 외아들 양길이가 의용군에 끌려나가 영영 돌아오지 않고 사변이 나던 해 정월에 의정부로 시집보낸 딸 양순이 소식마저 끊어지자 얻은 속앓이였다.

새삼 의로웠다. 저 달도 나처럼 그들을 기억하고 있을까. 그리

운 사람들이었다. 더구나 아버지를 생각하면 언제나 가슴이 찢어지면서 포근한 정감에 감싸였다.

늦손가락 사건 후 어린 양득은 한동안 알 수 없는 설레임 속에서 아버지를 슬슬 피했다. 웬지 불안하고 얼마만큼은 죄스럽고, 그리고 행복했다. 얼마동안을 어린것은 부끄러운 것 같기도 하고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그리운 것 같기도 한 묘한 심정을 주체 못하다가 아버지에게 정성을 쏟기 시작했다. 돈나물 김치를 좋아하는 아버지를 위하여 들뜸을 더듬어 돈나물을 뜯기도 했다. 아무도 몰래 짬을 몽쳐 수세미를 만들어 아버지의 고무신을 말끔히 닦아놓기도 하고 싸아한 향기가 나는 더덕을 뒷산 후미진 곳에서 캐어오기도 했다. 아침마다 아버지가 일어나기 무섭게 세숫물과 양치소금을 마루끝에 갖다도 놓았다.

아버지는 기특해 했다.

「우리 양득이 아주 어른 됐구나.」

아버지의 그 한 마디에 그녀는 흡족하고 부끄러워서 그만 눈물이 피잉 돌곤 하였다.

손을 덜어주어 좋아하면서 엄마가 가끔 말했다.

「애는 참 이상한 애야, 어려서 울 때두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를 부르지 않구 아빠를 부르구 울었거든. 그 맞장구 무뚝뚝쟁이 아빠를 말야.」

그 아버지도 효도를 못받고 돌아가셨다. 엄마가 간 지 일년 후였다. 일곱 살 어린것이 등에 매달고 다닐 만큼 날 적부터 발육이 나뻐던 막내는 세 살을 못넘기고, 덕보 울보 양육이가 참하게 자라 서울서 상고를 나와 군청서기로 있던 착실한 청년과 결혼하여 조촐하게 살다가 대철이가 그 남편의 도움을 청하자 부부가 함께 서울로 올라왔었다.

그러나 그녀는 육친의 인연이 엷은 사람이었다. 사주에 천고(天孤)라는 것이 셋이나 들었다고 하는데 그 까닭인지 하나 남은 그 동생 양육이마저 삼년 전에 교통사고의 희생이 되었다. 현재도 남편 대철을 돕고 있는 그녀의 남편 맹사달은 아직도 재혼을 앓고 있고 그가 그녀의 친정 쪽의 유일한 연고자였다.

양득은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이제 주스 생각을 잊고 있었다. 갑자기 썰렁함을 느껴 자리웃기를 여미고 침실로 돌아갔다. 화려하게 꾸며진 침실은 알맞게 조정된 실내온도가 쾌적했으나 침대가 너무 넓었다. 누우면 튕겨질 것같이 스프링은 탄탄하고 탄력이 있고, 매트리스는 팽팽하여 쾌적하기 이틀째 없는 최고급의 침대였으나 그 침대에서 그녀는 잠이 오지 않았다. 토벽을 다섯 치 사방쯤 뚫어 창호지 한 장을 붙여 영창으로 삼은 킁킁하고 쿵쿵한 냄새나는 좁은 방의, 겨울이면 구석에 놓은 물대접에 살얼음이 잡히는 옷목에서 덮을 것도 변변치 않은 채 굴러자도 흔들어도 모를 만큼 건강한 단잠을 잤었던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지나간 옛날의 가난한 생활이 더 좋았다는 것은 아니다. 다시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한번 안락과 사치의 맛을 본 사람이다. 나태와 의타심은 이미 몸에 배어 있었다. 그러면서 불안과 거북스러움과 초조는 여전했다. 답답하다. 그녀는 간혹 흥포한 충동이 문득문득 일어나는 것을 어찌할 수 없다.

저 고상하고 고급스러운 커튼을 마구 찢혀 박박 찢어버리고 틀이 하나도 없는 담 너비 만큼이나 넓은 유리창에다 저기 저 탁자 위에 놓인 묵직한 은 담배그릇을 맘껏 던져봤으면——그러자 그녀의 눈앞에서 그 두껍고 투명한 특수유리가 깨—○ 하고 금속성을 냈다. 은 담배그릇이 맞은 데가 약간 뿌예졌나 했더니 동시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그 넓은 유리 전체에 짹짹 소리를 내며 번개같이 무수한 균열이 달렸다. 대소동이 일어났다. 그 유리는 영국서 들여온 진귀한 물건이었으니깐. 며칠이나 집에 돌아오지 않던 남편이 달려왔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시금치밭 김을 매고 있을 때에도 들어보지 못하던 무지막지한 소리다. 흥포한 쾌감이 그녀의 등골을 달렸다. 좀 후련해진다.

지금도 그녀는 그런 충동을 느끼고 있었다. 첫날의 실수가 머리에 떠올랐다. 화장실에서 망신을 한 그녀는 십 분도 못가서 다시 얼굴을 붉혀야 했다.

척척한 속옷을 갈아입지도 못하고 다과준비가 되어 있는 거실

에 다시 들어갔는데 바라다보이는 정원이 너무 아름답다. 다행히 문이 화안히 열려 있어 그녀는 정원으로 내려가 보고 싶어졌다. 발을 내디디려 하던 순간이었다. 그녀는 무엇인가에 호되게 부딪쳐서 털썩 엉덩방아를 찧었다.

홍선이가 입도 가리지 않고 깔깔댔다.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괜찮아요. 좀처럼 깨지지 않는 특수 고급 유리거든요.」

그런 버릇없는 말이었던 것이다. 양득은 몸을 뒤흔었다. 바로 어제 저녁에 겪은 일이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그녀가 가정부들이 거처하는 곳에 가는 일은 극히 드물다. 시킬 일이 있으면 인터폰으로 불렀다. 이때도 휴지가 떨어졌으니 가지고 오라고 하려다가 자기쪽에서 갔던 것이다. 밤이 늦었기도 했지만 무료했던 까닭이리라.

밤 아홉 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일하는 여자들은 모두 방에 모여 있었다. 텔레비전을 켜고 있는 모양인데 볼륨이 낮다. 그들은 얘기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녀는 홍선이를 부르려 했다. 그때 예천택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 사모님 너무 식성이 까다로와 참 어렵다고 문씨가 그러더라.」

「을챙이 적 생각 못한다구. 얼마전까지만 해두 발머리에 쪼그려 앉아 찬 보리밥덩이에 쓴 김치 쪼가리나 먹던 위인이 기가 맥혀서.」

성길이가 엄마가 받았다.

「응의 알을 삶아쥐두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맛을 모르거든. 차라리 보리밥에 쓴 김치쪽이나 갖다줘 보라지.」

와아 하고 모두가 웃었다. 한바탕 웃고 난 뒤 홍선이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요즘 참 예뻐졌지? 아주 속 빠진 미인이 됐어.」

「그렇게 닭고 가꾸는데 언챙이래두 미인되겠다, 애.」

성길이가 엄마의 말에는 노골적인 적의가 섞였다.

「아냐 바탕두 좋아요.」

홍선이가 뜻밖에 정색을 한다.

「뉘니뉘니해두 여잔 서방 잘 만나야 된단다아. 금방석에 앉았잖니.」

예천댁은 별떡 눕는 모양이다.

「어쨌든 복은 많이 타고 났지만 우리 회장님께 너무 기울어. 외모만 뻥질험 뿔하니. 박기사가 그러는데 딱할 때가 많대요. 너무 무식하대. 머리가 강통인가 봐. 애들두 애 그렇게 야단스럽게 가르쳐두 그저 그렇잖아. 들째두 또 떨어질 꺼야. 엄말 닦았나부지?」

「떨어지면 대수야. 뒷문두 있잖니. 돈이면 극락두 산다는데.」

더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어 양득은 소리없이 그 방앞을 떠났다. 다리가 따구 떨렸다. 살림에는 일체 간섭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모진 말 한번 한 일이 없는 주부였다. 손도 커서 만사에 후했다. 오라비니 형부니 동생이니 하며 부탁하는 대로 취직도 시켜주었다. 섭섭하게 한 기억은 아무리 더듬어 보아도 없었다. 그런데 왜 그토록 미운가?

분하다기보다 무섭고 억울했다. 사람도 무섭고 돈도 무서웠다. 남편도 무섭고 운전사도 무서웠다. 무섭고 억울했지만 그들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다. 그렇다. 시금치밭 둔덕 흙 위에 덜컥 퍼질러앉아 입이 미어지도록 손가락 가득히 보리밥 떠넣고, 손가락으로 짓국도 넣지 않은 씹쓸한 소금김치를 집어 찢어먹던 그 맛! 잘 씹지도 않고 넘겨도 체한 일 한번 없었다. 머리가 강통이라는 것도 정말인 모양이었다. 외모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게 세련되었으나 미세스 변이 아무리 애를 써서 좋은 선생을 대어 주어도 그녀는 동사의 변화 하나 터득지 못했다. 겨우 알파벳만 떼고 영어공부란 것을 포기해 버렸다. 피아노, 가야금도 시작해 보았으나 그녀는 완전히 음치였다.

남편을 따라 화려한 파티에 나가는 기회가 많았으나 그런 자리에서 그녀는 언제나 참담한 고독감과 패배감을 맛봐야 했다. 즐겁고 우아하게 오가는 회화들을 우리말로 하는 것조차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저 입만 헤 벌리고 고행 같은 그 자리가 끝나기만을 바랐다.

괴롭게 몸을 뒤채이다가 그녀는 잠이 들었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 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내던 사람이 요즘와서는 밤마다 어지럽게 꿈을 꾸다. 그러나 깨었을 때는 모조리 잊어버리는데 그 꿈만은 또렷이 기억에 남았다.

그녀는 어딘가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아마 사람이 오가는 길가였던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오간다. 떠들며 오간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녀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다. 전혀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 차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 더러는 밟고도 지나간다. 그녀는 왜 거기 앉아 있어야 하는지 까닭을 몰랐다. 외롭고 무섭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녀는 거기 앉아 있어야 하는 이유를 깨달았다. 빼앗겨서는 죽어버리는 소중한 것을 품속에 안고 앉아 있었던 것이다. 그러자 더욱 무서워서 오금이 붙었다. 갑자기 누군가가 덤벼들어 「그것」을 빼앗으려 했다. 안돼, 안돼. 그녀는 몸부림을 쳤다. 그러나 힘이 모자란다. 그 누군가는 드디어 우악스럽게 그녀의 가슴을 헤치고 그것(그 소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녀는 기실 모른다)을 빼앗았다. 그는 그것을 자랑스러운 듯이 높이 쳐들었다. 그것은 금빛으로 빛나는 낫손가락이었다. 내 꺼야 내 꺼야——그녀는 악을 쓰며 그 흉칙한 놈의 팔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대소동이 일어났다. 여러 사람들이 덤벼들어 그녀에게 매질을 했다. 마구 두들겨 맞으며 그녀는 짹 짹 악을 썼다. 내 꺼야 내 꺼야이——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 그녀는 바둥댔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모두 손가락질을 했다. 「망신이다, 망신이야.」 얼굴에 입만 있는 사람들이 합창을 했다. 그러나 그 소동 속에서 그녀는 괴상한 쾌감과 해방감에 취해 갔다. 스스로의 삶이 확인된 느낌이었다. 오래전에 들었던 음성이 부드럽게 귓전에서 울렸다. 네 맘 알겠어, 알겠다니깐. 체면없이 미친듯이 체머리를 흔들며 악을 쓰고 있는 뒷머리를 따뜻하고 큰 손이 조용히 와 받쳤다. 양득은 그 손이 누구의 것인가를 알자 비로소 와아 소리를 내어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아——형용할 수 없는 위로와 안도와 사랑을 느끼면서 그녀는 머릿속을 번개같이 스쳐가는 것이 있는 것을 깨달았다. 진실로 소중한 것은, 빼앗길 수 없는 것은, 금색

으로 반짝거리는 눈썹가락이 아니고 이것이었다! 모든 못난 행동, 창피스러운 소동을 무릅쓰면서까지 확인하고 싶었던 목숨, 사랑——

꿈은 복잡하고 어지럽고 내용도 있었고 길었는데 시간적으로는 불과 삼 분이 되지 않았다. 자기의 흐느끼는 소리에 잠이 깨 그녀의 눈길이 우연히 닿은 곳이 문갑 위의 서서체 탁상시계였고, 시계바늘은 잠이 들 때보다 그리 자리가 달라져 있지 않았다.

아둔한 머리에도 기묘한 느낌이 자주 고개를 들었다. 그 꿈은 방금 생리적으로 꾸는 것이 아니고 긴 세월 동안 깨닫지 않고 지냈지만 자기 내부 깊고 어두운 곳에 오랫동안 간직되어 있던 어린 날 그 하루에 자기 안과 밖에서 일어났던 한 토막 극이었다. 그것은 불에 쪼면 나타나는 글씨처럼 오랜만에 꿈을 통하여 의식의 표면에 떠올랐던 것이었다. 외로움과 억울함과 불안과 소외감이 이때 불이 되었었다. 이윽고 이후, 양득은 자주 의식의 암소(暗所)에 특수 안료를 써서 접어둔 이 은밀한 사연을 그 불에 자주 쪼는 버릇이 생겼다.

송희장 부인이 젊잖은 남편을 괴롭히게 된 것은 그후부터다. 물건을 훔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무의미한 이해할 수 없는 소행은 습관이 되고 간헐적으로 되풀이되었다. 그리고 기이하게도 그녀가 훔친 것은 언제나 손가락뿐이었다.

처음으로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은 송희장이 며칠을 집에 돌아가지 않고 있었던 때였다. 그는 자기 소유의 호텔 스위트가 붙은 호화를 극한 방에서 기거하고 있었다. 해외공사 관계로 외국에서 온 상대방 업체의 간부들이 그 호텔에 투숙중이라 그러한 쪽이 여러모로 편리할 것이라는 것이 구실이었으나 회사측 간부들은 동의를 하면서 내심 실소를 하고 있었다. 외국서 간부들이 오간다 해서 회장이 자주 만날 필요는 없었기 때문이다.

건강하고 청결한 생활을 하던 송희장은 혹(惑)하지 않게 된다는 40대에 이르러 비로소 흔들리고 있었다. 상대는 얼마전까지 비서로 있던 H대학 영문과 출신의 미스 최였다. 지성적이고 깔끔하고 명랑하고 기가 막히게 유능한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송희장은 그런 여성도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것은 의도가 아니고 연애였다. 그의 첫사랑이었다. 담백하고 자연스러우면서 민첩하고 살뜰한 그녀를 이제 그는 잠시도 옆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게 되어 있었다. 흠뻑 빠져버렸다고 아는 사람들은 뒤에서 수근거렸지만 그는 진지하게 전신으로 그녀를 사랑했다.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는 여성이니만큼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된 그녀를 모두들 안돼 했다. 그러나 그녀는 정상에 있는 남자의 순정에 감동하고 있었다. 불륜임에는 틀림이 없었으나 그들의 사랑은 진실하고 역설적이라 하겠지만 깨끗했다.

아내로서 이런 중대한 위기에 있으면서 양득은 그 일을 저질렀다. 새 집으로 옮겨간 지 반년쯤 지난 무렵이었다. 집은 성같이 장려했다. 그러나 이사를 하자마자 초상이 났다. 천식 이외에는 별로 나쁜 데가 없었던 시아버지가 이틀 동안이나 거꾸 하품을 했다. 노인의 눈은 눈물로 진무르고 턱이 빠졌다. 그러나 그리 고통을 호소하지는 않고 사흘 되던 날 아침에 입이 찢어지도록 큰 하품을 한 끝에 숨을 거두었다.

호상이었으나 집들이도 하기 전에 초상이 난 것은 기분좋은 일은 못 되었다. 공들여 지은 집이었지만 어쩐지 꺼림칙했다. 송희장은 집을 생각하면 우울해졌다. 정이 미스 최로 완전히 옮겨진 까닭도 있지만 자식들의 싹수가 신통해 보이지 않는 것도 이유의 하나였을지 모른다.

공부를 많이 할 수 없었던 어버이들의 거의 모두가 그렇듯 송희장도 자녀교육에 지나치게 마음을 썼다. 그러나 그는 너무 바빴고 교육에 대하여 약간의 착각을 가지고 있었다. 공부를 계속 할 수 없었던 까닭이 가난이었기 때문에 후한 보수로 유능한 개인교사를 고용하여 아이들을 맡겨 학교에서 좋은 점수를 따게 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물쓰듯 돈을 쓰고 우수한 가정교사를 구해 와서 아이들을 맡겨봐도 효과는 없었다.

두 아들은 모두 K중을 뒷문으로 들어갔다. 열 네 살 난 큰딸도 마찬가지였다. 고교입시에도 떨어지자 그는 아예 사람 하나를 딸

려 형제를 미국으로 보냈다. 아이들은 첫해는 집을 그리워하더니 이듬해부터는 편지도 쓰지 않았고 삼년이 지난 후는 방학 때마다 돌아와도 영어만 쓰려 들었다. 지난 해에는 미국 친구들을 서너 명 데리고 돌아와서 법석을 떨었다. 양득은 그들이 자기가 낳은 자식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 열 한 살이 된 막내딸도 이제 자기 치마폭에서 떠나고 있었다.

며칠 전의 일이다. 그녀는 막내의 방을 기웃거렸다. 계란색과 흰색을 바탕으로 한 밝은 방은 동화책과 갖가지 인형들과 깜찍한 귀여운 물건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때가 되면 시계 속에서 구라과 민속품 복색을 한 남녀가 튀어나와 종을 치는 시계는 미소롭고 궁중무도회에 간 아름다운 의상을 입은 신데렐라가 화려한 궁중의 장식기둥에 기대고 서 있는 것같이 만든 전기 스탠드는 우아하고 환상적이었다. 물거품 같은 얇고 정교한 레이스로 선을 친 침대보와 침대 위에 몇 개나 포개엿은 쿠션과 커튼 등은 보드랍고 정결한 느낌을 더해 주었다.

방에는 조무라기들이 몇 와 있었다. 그들은 공부를 하지 않고 얼마전에 외국서 들여온 전자오락판을 중심으로 둘러앉아 있었다. 가정교사까지도 끼어 그녀가 방에 들어간 것도 모르고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다.

양득은 딸 옆에 가서 섰다. 자기도 신기한 듯이 들여다보며,  
「이게 접때 흥상무가 갖다주신 거로구나.」

하면서 손을 뻗어 무심히 그 놀이판을 건드렸다. 순간, 전자판에 빨간색과 파란색의 작은 불들이 여기저기 켜지고 그 불들은 번쩍 번쩍 명멸하면서 은빛 쇠구슬들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이리저리 부딪고 달렸다.

「엄마아, 왜 이래.」

딸이 앙칼지게 소리를 질렀다.

「뭐야. 다 망쳐 놨잖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아무데나 손을 대는 거야.」

그리고는 엄마쪽을 무시한 채,

「애들아 다시 하자, 다시.」

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처음 당하는 일은 아니었으나 어린 딸의 「아무것도 모르면서」라는 이 말은 가슴에 뜨끔하게 와 닿았다. 이윽고 독층에 쏙인 자리가 시간이 갈수록 부어오르고 아파지듯이 이 말은 아픔을 더해가며 그녀 가슴에 오래 남았다.

같은 말을 그녀는 다음날 바로 면전에서 또 들었다. 시누이들이 찾아왔었다. 시누이는 셋이었다. 큰시누이가 그녀와 동갑의 마흔 살, 둘째가 세 살 아래, 그 아래 둘을 잃고 늦게 낳은 막내는 미국 유학중이었다.

찢어지게 가난하던 때 태어난 시누이들은 둘이 다 국민학교만 나와 공장에 다녔었다. 공장 기숙사에서 동료들과 어울려 지내는 동안 여성잡지 주간지 따위도 읽고 교양시간에 편물도 익히고 꽃꽂이 기타까지 배웠다.

비슷비슷한 처지의 남자들과 각각 결혼하여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오빠가 강남에 복덕방을 냈다. 둘은 재빠르게 거기 달라붙었다. 복부인이라던가, 오빠가 나무랄 정도로 극성스럽게 날쳤다. 남편이 모르는 돈이 억이 넘었다. 거기다가 친정이 날로 커가서 당당하게 재벌 소리를 듣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제 위에 사람이 없는 것같이 만사에 자신이 만만했다. 취미생활, 교양강좌 따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형은 어느 꽃꽂이 동호회의 회장으로 일류 호텔에서 매년 춘추로 열리는 전시회에 매회 대작을 출품하여 상류층 부인이 많은 그룹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었고, 아우는 운동신경이 발달되어 있는 모양으로 수영, 등산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여성 산악회 회장으로 자일에 매달린 처녀 같은 모습이 텔레비전에 방영된 일도 있다. 오빠가 대재벌이 되고부터는 그녀들은 그 여력으로 일류 여류명사가 되어 있었다.

빠리빠리한 이 시누이들 앞에서 양득은 언제나 주눅이 든다. 이 날도 어색하게 웃으며 그들을 맞는데 그들은 울케를 무시한 채 요리사부터 불러 어려운 이름의 불란서 요리를 주문하고 난 뒤에야, 「언니 오늘 우리 점심먹구 가요.」

하며 을케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오랜만이유 언니. 그런데 좀 여위었네. 어디 아푸?」

작은 시누이가 물었다.

「아아뇨.」

「너무 편해서 그런 거야. 글썄 뭐라두 해봐요. 요샌 여자들두 말유. 너무 무식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두 사람 대접 못받는다니깐. 언니가 나오기 싫으면 내 민여살 집으로 보내 줄께.」

큰시누이가 답답하다는 듯이 체머리를 흔들었다.

두 시누이는 곧 저희끼리 얘기문을 열었다. 어느 회장부인이 저번 전시회 때 입고 나온 앙상불은 분명 「줄리앙」 작품일 거라고 작은시누이가 말했다.

「그럴꺼야. 너무 눈에 띄었어. 마드모아젤 로제가 그러더라. 줄리앙의 의상은 너무 눈에 띄어 비경제적이라구. 한번 보면 잊혀지지 않을 만큼 야단스럽잖아. 어느 모임이나 모이는 사람들은 대개 같은 사람들이니깐 모두가 기억하게 되어 여러번은 못 입거든.」

「그 남자 참 웃기지?」

「그래두 여전한 것 보면, 모두들 비싼 맛으루 가나 봐.」

「언니 지금 입고 있는 것두 줄리앙 것 아냐?」

「그러는 너는? 그 블라우스 저번 쇼에서 윤진임이가 입고 있던 거지. 그치?」

둘은 아하하 오호호 하고 웃었다.

화제가 바뀌었다. 이번에는 무슨 헛슨 이야기였다.

「애 요번에 너 일본 가거든 말야. 긴자이가의 규우쿄도오에 들러서 장류(長流) 대, 중, 소로 좀 사다다우. 호분두 좀 넉넉히.」

언니가 말했다. 아우는 뽀루통해지면서,

「저번에두 사다렸지 않아. 쓰두 얹으면서.」

「나두 쓰구 선생님두 좀 드리려구 그런다, 왜.」

「자기두 자주 나가면서. 밤낮 나만 보구.」

「애 너 일부러 가니 거길. 긴자이가다. 일본 가면 게서 살다오면서 지나는 길에 좀 들르면 어때.」

그녀는 동양화를 배우기 시작하고 있었다. 아우를 나무라다가,  
「그건 그렇구 너 영어회화 잘 돼가니? 미스 스퀴우터두 잘 지내구?」

아우가 애교스러운 얼굴로 대답했다.

「쉬 이즈 두우잉 웰.」

형은 잠깐 허를 찔린 얼굴이 되었다가,

「그래 잘 나가구 있는 것 알았다. 기집애두.」

눈을 흘기고 아우는 혀끝을 쏙 내밀었다. 갈잡게들 굴고 있었다. 그러나 양득은 그들이 굉장하게만 보였다.

점심준비가 되었다는 말에 그들은 식당으로 건너갔다. 요리사 문씨는 오랜만에 신이 나서 그야말로 S호텔의 컨티넨탈에서 먹는 것보다도 맛있는 증새우 그라탕과 혀가자미의 무니에르에 감칠맛이 나는 호와이트 소오스를 곁들여 흥선이에게 들려 들여보냈다. 그는 절대로 자기가 접시를 나르지는 않았다.

시누이들은 요리를 앞에 하고도 꽤나 아는 척을 했다. 한없이 노닥거리다가 후식이 끝나자 그들은 갑자기 바쁘다면서 총총히 일어섰다. 을케를 찾아왔다면서 그들은 줄곧 을케를 화제 밖으로 몰아내고 저희들끼리만 떠들다가 돌아갔다.

양득은 그들이 탄 차 뒤를 따라 대문 밖까지 따라나갔다. 같이 따라나온 정원사는 그녀 뒤에 잠잠이 선 채 그녀가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참을 손을 흔들며 서 있던 그녀는 느릿하게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집쪽으로 향한 것은 아니다. 말쑥하게 비로 쓸은 길쪽으로 걸어나갔다. 고급 주택가는 사는 사람들이 집 밖의 주변에까지 신경을 쓰는 까닭인지, 길가에도 손질이 잘된 관목이랑 꽃이 가꾸어지고 더러는 자연적으로 문전을 장식한 집도 있어 마치 아름다운 공원 같다. 한참을 그런 길이 뻗다가 완만한 경사길로 이어지고 경사가 끝나는 곳에 상가가 있다.

정원사가 뒤를 쫓았다.

「어디로?」

익아해하면서 묻는다.

「응?」

그제야 양득은 자기로 돌아갔다. 별로 갈 곳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대답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동네 친구집에 잠깐. 돌아올게요.」

그러나 그녀는 곧 돌아가지는 못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양득은 느릿느릿 호화로운 집들이 서 있는 길을 걸어갔다. 집집마다 담너머로 깔끔하게 손질이 된 정원수들이 보였다. 어떤 집은 솟제 숲같이 울창한 나무들 속에 묻혀 있었다. 일부러 가지를 밖으로 늘어지게 한 집이 있고 그 가지에는 꽃이 피어 있었다. 한낮의 호화 주택가는 오가는 차도 드물어 언제나 정적에 잠겨 있었으나 양득은 그것이 새삼스러웠다. 머리가 텅 비어 있었다. 그 텅빈 머릿속에 그렇게 무식해서야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느냐던 시누이 말이 푹 떨어졌다. 그 말은 떨어지는 순간에 날말 몇 개가 바뀌어졌다. 사람 대접이 아내 대접으로 바뀌어져 있었던 것이다.

아내——그녀는 입속에서 중얼거렸다. 반사적으로 남편이라는 말이 나왔다. 무척 생소한 생각이 든다. 한몸 한마음이라지만 돌아누우면 남남이지 뭐. 시금치밭에서 기다시피 쪼그린 채 몸을 움직이며 김을 매고 있던 시절에도 들었던 말이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었지. 아냐……그는 머리를 흔들었다. 서글픈인지 그리움인지 분간할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왔다. 뒷머리가 허전했다. 그 뒷머리를 받쳐주던 크고 따뜻한 손의 추억이 아프게 되살아났다. 그녀는 이제 물리적으로도 허덕이고 있었다. 마음껏 악을 쓰고 울며 빠져들어 갔던 썩썩이의 그 도취감을 다시 가질 수는 없을까. 가슴 속에서 불이 훗훗 탔다. 그 속 깊숙이 간직되어 있던 그 은밀한 사연이 적힌 숨겨졌던 글씨는 그 불에 쪼여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선명하게 드러나기는 했어도 솔직히 말하여 그녀는 그 뜻을 잘 모른다. 치사하게나마 망신스럽게나마 관심을 끌고 싶은 버려진 자의 목마름인가?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했던 기쁨과 두려움인가. 마치 색맹검사용의 미채(迷彩)같

이 그것은 어지러웠다. 갑자기 까닭없이 나쁜 짓을 저지르고 싶은 충동이 솟구쳐 올랐다. 이윽고 가차없는 벌을 받고 싶다고 진정으로 원했다. 그래야만 더 큰 죄를 미연에 막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래야만 사랑을, 목숨을 찾을 것만 같았다.

그녀는 발을 멈추었다. 슈퍼마켓이 바로 앞에 보였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비탈길을 다 내려와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녀는 같은 보조로 느릿느릿 열려 있는 문 안으로 들어갔다. 넓은 점포 안에는 갖가지 일용품들이 산같이 쌓여 있었다. 말쑥하게 처리된 상품들이 장식품같이 정연히 쌓여 있는 모습은 차라리 아름다웠다. 양득은 신기한 것이나 보는 것처럼 한칸한칸을 차례로 들여다보며 발을 옮겨갔다.

주방도구를 늘어놓은 칸이 나타났다. 냄비, 쟁반, 대접, 공기, 접시, 주걱, 칼, 도마, 국자——부엌에서 쓰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있는 것 같다. 그것들은 모두 가난했던 시절에 갖고 싶었던 것들이었지만 그 시절에는 보지도 못하던 것이 더 많았다. 대수롭지 않은 물건들은 오래 잊고 지나다가 다시 만난 옛친구처럼 다정스러웠다.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마음의 미채는 이미 지워져 있었다.

진열장은 거기서 끝나 있었다. 그녀는 뒷줄로 꺾어들었다. 모퉁이를 돌아 무엇인가 둔탁하게 빛나는 것이 먼 발치에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그쪽으로 다가갔다. 그것은 아무렇게나 쌓여 있는 스테인레스제 수저들이었다. 여기 있었구나.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수저 한 벌을 꺼냈다. 이어 한꺼번에 두 벌을. 거푸 대여섯 벌을, 옆에 누가 와 섰다. 그녀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결눈도 주지 않고 자꾸자꾸 수저만 꺼냈다.

그녀는 핸드백도 갖고 있지 않았다. 오른손으로 꺼낸 수저들을 안으로 굽힌 왼팔 위에 얹었다. 진열되어 있었던 것을 한 벌도 남기지 않고 다 꺼낸 후 오른팔을 돌려 그녀는 수저들을 탄탄하게 양팔로 감싸안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발을 떼어놓기 시작했다.

연보라색 실크 홈드레스를 입은 우아하고 아름다운 여인의 그

런 모습은 몹시 눈에 띄었다. 그러나 그녀는 호기심 어린 시선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느릿느릿 출입문까지 걸어갔다.

누군가가 뛰어왔다.

「아주머니 계산을 하셔야죠.」

「계산?」

「네, 값을 치르지 않았잖아요?」

「값?」

「수저값 말예요.」

얼굴에 여드름이 한창인 점원소년의 어조는 통명스러웠다.

「값을 치르라구?」

양득이는 못 알아듣겠다는 듯이 눈을 크게 떴다.

「남의 걸 그냥 갖구 가요?」

소년이 그녀의 앞을 막고 카운터쪽으로 소리를 질렀다.

「아저씨, 여기 와 보세요. 이 아줌마 좀 이상해요.」

머리가 벗어진 중년이 달려왔다.

「뭐야.」

「이 여자가 이걸 그냥 갖구 가잖아요.」

대머리가 그녀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아주머니, 카운터는 그쪽인셈쇼.」

그가 카운터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과 양득이가 수저를 안은 채 밖으로 뛰어나간 것은 거의 동시의 일이었다.

「도둑이다. 저 도둑년 잡아라——」

대머리와 소년이 달려나와 우악스럽게 그녀의 팔을 낚아챘다. 쟁그랑거리며 수저들이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졌다.

「이 도둑년이——」

소년이 찹찹거렸다. 양득은 소년 못지않게 큰소리로 외쳤다.

「내 꺼야! 내 꺼야아——」

조막만한 발육부진의 동생을 등에 업은 채 일곱 살 난 섭섭이가 악을 쓰고 있었다. 주채소와 면소에서 나온 사나이들이 강제로 거두어간 유기들 속에서 자기의 작은 낫손가락이 햇빛을 받아 금빛으로 반짝거리며 멀어져 가고 있었다.